

2015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③	2	③	3	①	4	④	5	④
6	⑤	7	②	8	⑤	9	③	10	③
11	⑤	12	⑤	13	③	14	②	15	③
16	⑤	17	④	18	①	19	②	20	①
21	①	22	②	23	④	24	④	25	⑤
26	②	27	⑤	28	⑤	29	⑤	30	①
31	⑤	32	②	33	④	34	③	35	①
36	②	37	②	38	①	39	①	40	⑤
41	③	42	③	43	②	44	①	45	④

[화법]

1. [출제의도] 토론 전략 이해하기

‘반대 1’은 준비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① 사회자는 입론과 반론의 순서를 안내하여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찬성 1’은 구체적인 예로 태권도 군무, 단체 에어로빅, 차전놀이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반대 2’는 물리적 마찰과 감정적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여 반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찬성 2’는 준비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반대 1’의 근거를 활용하여, 준비 기간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며 분담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 내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

자료 1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① 자료 1은 공동 개최한 영상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자료 1은 장소 이용료를 분담하여 ‘우리 동아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을 분담하고 각 학교의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자료 2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 중에 갈등이 생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연합 체육대회는 물리적 마찰과 감정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자료 2는 친목을 위해 열린 경기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상대 팀을 야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연합 체육대회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 [출제의도]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 이해하기

‘반대 1’이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하려면 준비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찬성 2’가 이를 인정하면서 찬성 측 주장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양측은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하려면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양측 모두 스포츠클럽대회의 비용 분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양측 모두 연합 체육대회가 학교 간의 경쟁 해소에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찬성 측만 공동체 의식 함양을 언급하였고 모든 학생의 참여는 양측 모두 언급하지 않았으

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양측 모두 안전을 위해 지역 사회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4. [출제의도] 대화의 원리 파악하기

㉔에서 은혜가 ‘저는 원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해서’라고 말한 것은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
① ㉑에서 ‘괜찮으시면’, ‘잠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㉑의 ‘글을 잘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에서 자신에 대한 겸손의 의미가 나타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㉔에서 선생님의 ‘평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가 둘 다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은 은혜에 대한 칭찬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㉔에서 ‘간호사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는 은혜의 말에 선생님이 ‘어울릴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해.’라고 동의하며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5. [출제의도] 공감적 듣기를 활용하며 말하기

은혜는 서영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서영이가 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대답해야 한다. 따라서 은혜가 ‘과정 선택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라고 서영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선생님이 말한 과정 선택에 관한 조언을 정리하여 이야기한 것은 적절하다.

[작문]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하기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인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① 학생의 초고를 보면 전체적으로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관하여 썼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학생의 초고에서 4문단을 보면 ‘정부와 해당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예상 독자에 정부와 노인 평생교육 담당 기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학생의 초고를 보면 논설문이란 형식을 갖추어서 노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학생의 초고를 보면 노인 평생교육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의를 언급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가)–2의 자료에서는 노인들이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① (가)–1은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성인 평균 참여율보다 낮다는 내용이므로 초고의 첫째 단락에서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③ (다)는 노인 평생교육이 은퇴한 노인들의 재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넷째 단락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④ (가)–2는 노인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내용이고, (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수가 적다는 내용이므로 둘째 단락의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수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이고, (다)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초고에서 평생교육의 효과 중 하나로 노인들의 삶에 활력소가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홍보 문구에서는 노인 평생교육을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문답법은 ‘무엇일까요?’와 ‘평생교육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문답법은 사용되었으나, 초고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② 초고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문답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초고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문답법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초고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9. [출제의도] 작문 과정에서 활용한 방법 파악하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는 과제의 초고에 나오지 않는다.
① 1문단에서 글쓰기가 다큐멘터리를 봤던 경험을 반영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조사한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를 글에 제시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2문단에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마지막 문단의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기’에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동참을 권유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0.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설레이다’는 ‘설레다’의 잘못된 표현이므로, ㉔의 ‘설레는’을 ‘설레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예고’의 의미는 ‘미리 알림’으로 의미가 중복되어 ‘미리’를 삭제해야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앞문장과 유사한 내용의 문장이 이어져서,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고’로 고쳐야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제3세계 어린이 돕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어서 단락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㉔을 삭제해야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열된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든’을 사용해야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발음법 규정 적용하기

㉔은 조사이므로 ㉔의 ‘-’는 단모음으로 발음될 경우 [ㄷ]로 발음되고 ㉔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단모음으로 발음될 경우 ㉔의 ‘-’는 [ㅣ]로 발음된다.
① ㉑의 ‘-’는 단어의 첫음절이어서 이중 모음으로만 발음해야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㉔은 조사이기 때문에 ㉔의 ‘-’는 단모음 [ㄷ]로 발음되는 것도 허용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㉔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㉔의 ‘-’는 [ㅣ]로 발음되는 것도 허용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 ㉑의 ‘-’는 [ㄷ]로 ㉔의 ‘-’는 [ㅣ]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2. [출제의도] 띄어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러므로 ‘수’를 조사로 보아 ‘기여할수’의 띄어쓰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올바른 문장 파악하기

ㄷ의 ‘아파서’가 ‘만약’과 호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만 ‘만약’과 호응하려면 ‘아파서’를 ‘아프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14. [출제의도] 지시·대용 표현의 기능 이해하기

효과적인 담화를 위해 사용하는 ‘이’, ‘그’, ‘저’는 대상과 말하는 이, 듣는 이 사이의 거리에 따라 선택되는 지시·대용표현이다. ㉠은 화자인 ‘효준’과 청자인 ‘유로’에게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진열대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은 화자인 ‘유로’와 청자인 ‘효준’이 있는 장소에서는 현재 보이지 않는 □□매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을 사용하여 ‘효준’이 지시한 장소는 ㉡이 나타내는 장소와 동일하지 않다. ㉣ ㉤은 화자인 ‘효준’과 청자인 ‘유로’에게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진열대의 운동화를 가리키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은 화자인 ‘효준’에게 가까이 있는 운동화를 가리키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은 화자인 ‘유로’에게는 멀지만, 청자인 ‘효준’에게 가까운 운동화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도 ‘효준’에게 가까운 운동화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화자인 ‘유로’와 청자인 ‘효준’이 있는 장소에서는 현재 보이지 않는 □□매장을 가리키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5. [출제의도] 훈민정음 제자 원리 이해하기

<보기>에서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든 것이 가획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체자 ‘ㅇ, ㄹ, ㄷ’은 각각 ‘ㄱ, ㄴ, ㅅ’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체자 ‘ㄷ’이 가획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보기>의 표로 볼 때 ‘ㅋ’은 기본자 ‘ㄱ’을 가획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보기>의 표로 볼 때 ‘ㄴ’과 ‘ㄷ’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헛소리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보기>의 설명으로 볼 때 가획자 ‘ㅎ’은 기본자 ‘ㅇ’을 가획한 것으로 더 세계 소리가 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보기>의 설명으로 볼 때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인문]

[16~19] <출전> 박해용 외, 「다시 읽는 서양철학사」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1문단에서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있고 2,3,4문단에서 이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철학적 인간학’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셀러, 플레스너, 겔렌의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그들의 견해를 절충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자아의식’, ‘탈중심성’ 등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철학적 인간학’을 연구한 세 학자의 견해를 밝히고는 있지만 세 가지 이론의 우열을 가려 특정 이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서 ‘겔렌’은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문화에 다시 영향을 받아 충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2문단에서 ‘셀러’는 인간만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 ‘자아의식’을 통해 충동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 1문단에서 경험과학적 연구 성과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학문이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1문단에서 ‘철학적 인간학’이 다른 생명체와 차별

화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학문이라고 하였다. 2문단에서 ‘셀러’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4문단에서 ‘겔렌’은 인간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의 특징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겔렌’과 달리 2문단에서 ‘셀러’는 인간의 ‘정신’ 작용의 하나인 ‘자아의식’을 통해 인간만이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셀러’와 달리 ‘겔렌’은 인간만이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나 자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핍된 존재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8. [출제의도] 다른 학자의 견해와 비교하기

3문단에서 ‘플레스너’는 인간만이 동물과 달리 ‘탈중심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고 보았고, <보기>의 ‘카시러’는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3문단의 ‘플레스너’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환경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3문단의 ‘플레스너’도, <보기>의 ‘카시러’도 인간과 동물이 모두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3문단의 ‘플레스너’는 ‘탈중심성’을 가진 인간만이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플레스너’와 ‘카시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19. [출제의도]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셀러’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아의식’은 ‘정신’ 작용의 하나라고 했다. 회수와 유치원 아이들은 모두 인간이므로 ‘셀러’가 말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정신 작용의 하나인 ‘자아의식’도 가지고 있다. ㉠ <보기>의 회수가 신호를 지키는 아이들을 보고 무단 횡단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셀러’가 말한 ‘자아의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하는 대상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인간이 ‘탈중심성’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 ‘플레스너’의 입장에서 회수가 반성했기 때문에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인간이 만든 ‘문화’의 한 형태인 ‘사회적 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 ‘겔렌’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지켜야 하는 <보기>의 교통 규칙 또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기 위해 만든 사회적 제도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인간은 자신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제도에 다시 영향을 받아 충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한다고 한 ‘겔렌’의 입장에서 보면 <보기>의 교통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교통 규칙이라는 제도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 무단 횡단을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사회]

[20~23] <출전> 유동운, 「소비자 경제 심리의 법칙」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정상 가격의 변화 추이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문단에서 ‘하한 가격 한계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가 품질을 의심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최저수용가격을 말하고’라고 했

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1문단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그 가격을 해석하고 그 가격에 담겨 있는 의미를 평가해서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4문단에서 ‘소비자가 현재 구매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준거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구매를 결정한다. 하지만 유사 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이 없다면~소비자는 제품의 구매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6문단에서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을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이 제시한 가격을 자신들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최저수용가격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가 품질을 의심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다. 최고수용가격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를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때문에 그 제품의 품질을 의심해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최저수용가격과 최고수용가격의 사이, 즉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 사이에 판매자가 제품을 팔 수 있는 최적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문단에서 ‘하한 가격 한계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가 품질을 의심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최저수용가격을 말하고’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3문단에서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은 최저수용가격과 최고수용가격의 사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3문단에서 ‘상한 가격 한계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를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최고수용가격을 말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현재 구매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준거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구매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3.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의 ‘올리다’는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의 의미를 갖는 ‘오르다’의 사동사로 사용되었다. ㉠ ‘위쪽으로 높게 하거나 세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 인사, 절 따위를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기록에 적히다.’의 의미를 갖는 ‘오르다’의 사동사로 사용되었다. ㉤ ‘의식이나 예식을 거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술]

[24~27] <출전> 안진욱, 「트랜스 라틴」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보테로가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작품 속 인물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했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 2문단에서 보테로의 그림에서는 ‘인물이 지닌 본래의 개성적 특징은 거의 생략되어 파악하기 어렵다.’

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2문단에서 ‘평면의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에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형태의 팽창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2문단에서 보테로는 ‘형태를 단순화하고 팽창시켜 볼륨감에 주목하도록 하여’, ‘그림 전체에 구현된 볼륨감을 감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3문단에서 ‘비례의 파괴로 인해 느껴지는 부조화에 대해 감상자는 보테로의 회화를 위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5.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보테로는 ‘대상이 가진 고유의 색을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색칠한 면 위에 또 색을 칠함으로써’, ‘색을 더 견고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상의 고유한 색을 표현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에서 색을 덧칠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보기>에서의 ㉡의 인물들을 ㉠에서는 풍성한 몸매로 팽창시켜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보테로는 형태의 팽창을 통해 볼륨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볼륨감은 미술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보기>에서의 ㉡의 모자가 ㉠에서는 얼굴에 비해 과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보테로는 실제 세계와는 비례를 달리하여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구현하고 싶은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보기>에서의 ㉡의 상들리에가 ㉠에서는 단순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보테로는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팽창시켜, 감상자가 작품 속 특정 대상에만 시선이 머물지 않고 그림 전체에 구현된 볼륨감을 감상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보기>에서의 ㉡의 남자 발밑의 그림자가 ㉠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보테로는 대상의 고유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자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6. [출제의도] 다른 관점과 비교하며 판단하기

보테로는 거장들의 권위나 명성을 끌어내리려 한 것이기보다는 거장들의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을 감상자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보기>에서 앤디 워홀은 ‘작가의 권위를 빼앗고 오리지널 작품의 절대적인 권위와 명성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하였다. ① 보테로는 거장의 그림과 자신의 작품이 지닌 차이를 강조하고자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지문과 <보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보테로는 거장의 작품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재창조하려고 했고, 앤디 워홀은 거장의 작품을 복제하여 작품의 권위와 명성에 맞서려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보테로는 거장의 작품을 차용하면서 거장들의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을 감상자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27.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구성(構成)’의 사전적 의미는 ‘색채와 형태 따위의 요소를 조화롭게 조합하는 일’이다.

[과학]

[28~30] <출전> 이영돈 외, 「해부생리학」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뼈의 재구성에 대한 개념과 뼈에 있는 세포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뼈의 재구성 과정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5문단에서 뼈의 밀도는 3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점차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뼈의 밀도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문단에서 우리 몸의 뼈는 평생 동안 길이나 굵기가 변하는 동적인 조직이며, 뼈의 재구성은 일생 동안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2문단에서 뼈모세포는 뼈조직의 표면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1문단에서 외부 환경에 따라 뼈의 단단한 정도가 바뀌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2문단에서 뼈모세포는 새로운 뼈바탕질을 생산하는 세포이고, 뼈파괴세포는 뼈바탕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 세포라고 설명하고 있다. 3문단을 통해서 이들 세포는 모두 뼈의 재구성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 파악하기

<보기>는 뼈의 재구성이 진행되는 과정 중 뼈파괴 세포에 의한 뼈바탕질의 분해 과정에서부터 뼈바탕질을 생산하기 위해 뼈모세포가 분열된 과정까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는 뼈파괴세포에 의한 뼈바탕질이 분해되는 과정이고, (나)는 뼈파괴세포가 녹인 뼈바탕질의 자리로 새로운 뼈바탕질을 생산하기 위해 뼈모세포가 이동한 과정이고, (다)는 뼈모세포가 뼈바탕질을 생산하려고 분열한 과정이다. 2문단에서 뼈세포는 더 이상 뼈바탕질을 생산할 수 없는 세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 뼈의 재구성 중 뼈바탕질을 새롭게 생성하던 뼈모세포들 중 일부는 새로운 뼈바탕질을 생산할 수 없는 뼈세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뼈의 재구성 과정 중 뼈세포가 된 세포들은 뼈바탕질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① 3문단에서 뼈의 재구성 과정은 뼈바탕질의 교체부터 시작하며, 이를 위해 뼈바탕질의 파괴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뼈파괴세포가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3문단에서 뼈의 재구성 과정 중 뼈파괴세포는 산과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비하여 뼈바탕질을 녹이며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3문단에서 뼈파괴세포가 뼈바탕질을 녹이며 지나간 자리로 주변에 있던 뼈모세포가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3문단에서 뼈파괴세포가 이동한 자리로 이동한 뼈모세포가 분열한 것은 뼈바탕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0. [출제의도] 글을 근거로 학생 반응 추론하기

<보기>는 우주와 같은 중력이 낮고 압력이 낮은 공간에서의 뼈의 재구성에 대해 학생이 반응한 내용을 추론한 것이다. 4문단에서 중력이 낮은 공간에서 뼈는 지구에서처럼 중력에 의한 압력을 견딜 만큼 단단해질 필요가 없어지므로, 뼈의 재구성 활동 중 뼈모세포의 활동이 적어지게 되어 뼈의 단단한 정도가 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우주에서는 뼈모세포의 활동이 뼈파괴세포의 활동보다 줄어 뼈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고전소설]

[31~34] <출전>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

31. [출제의도] 고전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주인공의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주인공의 부정적 면모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조선 세종대왕 때’라는 구체적 시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조선 세종대왕 ~ 근심으로 지냈다.’에서 ‘선군’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

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꿈속에서 본 ~ 솟아나는 듯 했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선군’이 본 ‘숙영 낭자’의 인상을 묘사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2.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A]는 ‘낭군은 ~ 했나이다.’라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여 ‘선군’이 다른 가문에 구혼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낭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B]는 ‘머칠 전 ~ 갔나이다.’라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여 ‘낭자’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선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이동 공간을 중심으로 서사 내용 파악하기

‘선군’은 ㉠에 도착하고 나서야 ‘숙영 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① ‘선군’은 열여섯 살 되던 봄날, ‘숙영 낭자’와 만나는 꿈을 통해 자신이 천상에서 귀양 와 인간 세상인 ‘안동’으로 내려온 사실을 듣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숙영 낭자’와 ‘선군’은 ‘요지연’에서 서로 회통한 죄로 각각 ‘옥연동’과 인간 세상인 ‘안동’으로 귀양을 오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내가 ~ 죽었구나’에서 ‘선군’이 ‘안동’ 집에서 ‘서울’로 떠난 뒤 ‘백상군’은 ‘숙영 낭자’를 의심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옥연동’에 있던 ‘숙영 낭자’가 ‘안동’ 집에 있는 ‘선군’의 꿈에 나타난 후 ‘선군’은 ‘숙영 낭자’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리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4. [출제의도] 문학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선군’이 ‘숙영 낭자’와 사별한 것은 매월의 모함과 ‘백상군’의 오해 때문이지, ‘백상군’이 유교적 관습에 따라 임 진사에게 구혼했기 때문은 아니다. ① ‘선군’은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온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부모가 구혼하고 육례를 갖추어 혼인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선군’은 ‘숙영 낭자’와의 사랑 때문에 ‘백상군’이 임 진사 덕에 청혼한 것을 따르지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숙영 낭자’가 천상에서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선군’의 꿈속에 나타나 ‘선군’에게 다른 가문에 구혼하지 말고 삼 년을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고전시가]

[35~38] <출전>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이규보, 「접파기(接夢記)」

35.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는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려는 화자의 삶의 자세가, (나)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글쓴이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② 두 작품 모두 이상 세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속세를 벗어나 유유자적하는 모습은 (가)에서만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두 작품 모두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가)와 (나) 모두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를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 파악하기

제2수와 제3수의 B에는 각각 ‘초당’에서 화자가 느끼는 한가로움과 ‘고기’라는 자연물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자연 경관에 대한

화자의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 제1수에서 제4수의 A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이 드러나 있어 적절한 진술이다. ㉢ 제1수와 제3수의 C에는 각각 막걸리와 물고기를 안주 삼아 냇가에서 노니는 화자의 삶의 모습과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화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에 적절한 진술이다. ㉣ 제1수와 제2수의 D에는 각각 초장과 증장의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상태인 한가로움과 서늘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제1수에서 제4수의 E에는 D를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로 임금님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적절한 진술이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접을 붙인 배나무에서 싹과 잎이 돌아난 것을 보며 괴이하다고만 느꼈을 뿐 의심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다. ㉠ 전씨가 배나무에 접을 붙이는 행위를 본 글쓴이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기에 적절한 진술이다. ㉢ 소백(召伯)과 한선자(韓宣子)의 고사를 활용하여 아버지 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강조하여 드러내었기에 적절한 진술이다. ㉣ 글쓴이가 배나무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은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라는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글쓴이는 배나무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기에 적절한 진술이다.

38.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의 ‘임금님’은 화자에게 자연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대상이고, ㉢의 ‘선친’은 글쓴이에게 그리움의 대상이다.

[현대시]

[39~41] <출전> 박두진, 「꽃구름 속에」
곽재구, 「새벽 편지」

39.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 ‘서러운 얘기’를 반복해 ‘사람들’이 겪은 고달픈 현실과 관련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 ‘새벽에 깨어나/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을 반복해 화자가 희망과 관련된 대상을 보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가), (나) 모두에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가)만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고달픈 현실을 겪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세계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 (나) 모두에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 (나) 모두에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마을마다’ ‘꽃가루’가 ‘흩뿌’린다는 것은 시적 대상의 고달픔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상황을 보여 준다. ㉠ (가)에서 ‘서러운 얘기’를 ‘잊고’ ‘꽃향에’ ‘취하여’ ‘쏟어지게 하여라’는 것은 시적 대상인 ‘사람들’이 지나는 고달픈 시간을 잊고 ‘꽃구름 속에’ 안겨 희망찬 봄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나)에서 ‘이 세상’에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는 것은 ‘희망’을 통해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가)에서 ‘한겨우내’는 추위와 굶주림의 시간으로 형상화되고,

(나)에서 ‘새벽’은 ‘희망’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는 시간으로 형상화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가)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사람들’의 서러움을 덜어주고자 하며 연민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고통하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겠다고 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이미지 파악하기

㉠에서는 ‘불어 오라’를 통해서 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에서는 ‘잠들고’를 통해서 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난다.

[현대소설]

[42~45] <출전> 황순원, 「별」

42.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소설은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누이와 청년이 마주 서 있던 일을 두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저 모른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속으로는 누이 같은 여자와 좋아하는 청년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다’로만 서술되어 있으므로 ‘아이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지키려 한다’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소재의 공통된 기능 파악하기

누이의 죽음 이후 아이는 누이가 과거에 자신에게 만들어 준 ㉠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에 올라타 누이를 생각하며 소리치다가 떨어져 눈물을 흘린다. 따라서 ㉠과 ㉢가 누이를 잃은 아이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소재라고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소설과 시나리오 비교 감상하기

S# 79는 집 밖이고 S# 80은 방 안 장면이므로, 카메라의 시선은 방의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해야 한다. ㉠ S# 80의 ‘정말 좋아해요.’, S# 82에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상해요.’라는, 소설 속에 없었던 누이의 대사가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소설에 있었던 의붓어머니가 이복동생을 꾸짖는 장면이 S# 82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S# 79의 ‘가을 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 카메라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 틸트 업한다.’와 각주 ‘틸트 업’의 ‘카메라 앵글을 위로 올리면서 촬영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S# 81의 ‘(인서트)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한 청년과 다정하게 마주 서 있는 누이’와 각주 ‘인서트’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